



洪水対策에의 提言

「災害 科學 센터」設立 코

予告없는 災害에 事前対策세워야

崔 榮 博

史上最大의 洪水

錦繡江山 하지만 우리 韓半島는 너무도 降雨에 弱하다. 年中行事처럼 洪水가 빚는 數많은 人命損失과 資產被害를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試鍊이라고 謂念만 할 것인가.

지난 8월 18, 19일 갑자기 異常氣候의 하나인 集中豪雨는 2일간에 무려 452.2mm로 觀象臺 設立以來 最大의 記錄이었다.

이래서 서울 및 中部地方에는 특히 산사태, 土石流(日人은 譚丸水라함), 축대붕괴와 內水범람(日人은 滉水害라함)이甚하였다. 22일 하오 5시 현재 中央災害對策本部集計에 의하면 死亡·失蹤이 528명, 樞災民 38만6천2백68명, 앞으로도 더욱 늘어날 것이지만 全國被害額은 1백33억원에 육박하여 單一 降雨被害額으로서는 史上最大라고 한다. 世界 10大都市의 하나인 首都서울의 物的被害額은 1960年代 10년 동안의 被害額과 거의 맞먹을 정도이고 水魔가 삼킨 귀중한 市民의 死亡·失蹤者 數는 279명으로 人口密集地인 까닭에 全國의 53%로서 半 이상의 큰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史上最惡의 水魔에 虛를 절린 首都아닌 水都가 되었다. 豪雨一過 舉國의인 災害復舊事業과 정성어린 同胞愛가 발휘되어 災民救護作業이 전개되고 있지만 앞날을 위하여 治水對策의 根本의인 再檢討가 있어야 하겠다.

8·19洪水의 가장 큰 特徵은 첫째로는 大河川下流部江邊 특히 小支流와 低地의 內水氾濫의 遷滯現象에 의한 浸水地이다. 이는 清溪川下流를 비롯하여 佛光川 및 貞陵川下流 등이며 地域으로는 德沼 千戶洞 龜室地區 聖水洞 徽慶洞 踏十里 漢南洞市場 永東大驛地 및 永登浦의 新吉 新林 및 九老洞 거기에다 麻浦區의 合井 望遠洞등으로 이 地域은 그야말로 때아닌 伊太利의 水都「베니스」와 같았다.

이것은 日政時의 傳統의in 洪水對策으로 洪水流量을 빨리 바다로 放流해야 한다는 洪水快疏方式에 의거, 大河川改修主義로 本流堤防을 우선 連續化시킨 데서 온 것으로서 上·中流部 自然遊水池의喪失과 防災立場에서 신중한 경토 없는 土地개간 河川 부지 및 低地埋立 등에 의한 地盤開發 때문이었다.

사실 人間이 自然河川에 대하여 함부로 손을 대면 河川은 새로운 反作用을 일으킨다는 法則을 무시한 데서 온 새로운 自然

의挑戰이 內水浸水地의 發生인 것이다. 거기에다 河川下流水位가 과거보다도 급격히 집중 상승하기에 逆流를 防止하고자 排水門을 막는 결과로 群小支流河川 및 排水路의 洪水는 河川本流堤防속의 排水門을 통하여 들어가지 못하니 內水가 沼澤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低地內水氾濫을 막기위하여 排水「펌프」로서 계속 江안으로 內水를 끌어 올려 버려야 하는데, 이 排水「펌프」는 없든지 또는 있는 것등의 點檢等 整備 불충분으로 그機能을 다하지 못한 實情이었다.

둘째로는 人災라 볼 수 있는 山地部의 山沙汰 土石流 및 築臺崩壞 등에 의한 大量 死亡牲者를 가장 많이 낸 天災아닌 人災인 것이다.

소홀한 技術的 研究

기록적인 暴雨이면 山이 무너지고 築臺가 崩壊하는 것을 自然災害라고 하여 그 責任을 轉嫁시킨 性質의 것일까. 우리는 多角의으로 그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쏟아진 暴雨로 北岳「스카이웨이」가 25m 가량 합물되면서 높이 500m의 溪谷으로 순식간에 사나운 날벼락처럼 土石流가 되어 큰 바위가 砲彈과 같이 물과 함께 13채의 家屋을 삼킨 洗劍亭慘變 및 死亡 25명의 水原의 山沙汰 등은 새로운 山地洪水로서 檢討할 만하다. 옛부터 우리는 洪水를 天災로만 들리는 習性이 있었다. 물론 水害는 暴雨가 原因이 되겠지만 같은 量의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土地條件에 따라 慘變이 일어나는 곳도 있고 아무런 事故도 없는 곳이 있다는 것에 注目해야 한다.

요컨대 水害常襲地는 土地條件이 降雨에 脆弱한 地點이라는 것이다. 이 條件은 상식적으로도 명백한 이상 우리가 여기에 살지 말고 또한 當局이 이를 強力히 國束하는데 서슴치 말아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全國民의 防災常識의 提高도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交通이나 災害事故등은 補償도 되겠지만 우리가 天災라 하는 洪水災害는 우리나라에 이에 대한 保險制度가 없는 이상 그 救護는 國民의 自發的인 同胞愛에 기대할 수 밖에 없다.

다음에 水害常襲地의 社會의 側面 및 技術的側面에 대한 災害의 點檢이나 調查研究에 소홀하여 왔다. 科學技術處는 이와